CCTV센터 카메라-저장장치 호환 안돼 예산낭비

■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4일 광주시 기획조정실과 (재)광주발전연구원을 상대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CCTV 카메라, 저장장치 따로 따로… 예산낭비=주경님(새정치·서구 4)행정자치위원장은 이날 광주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지난 2013년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실시하면서 CCTV 카메라와 영상저장장치 간 화소가 달라 호환이 잘 이뤄지지않는 등 영상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카메라는 200만 화소급을, 영상저장장치는 130만 화소급으로 운영됨에 따라 CCTV 1개의 영상을 판독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무용지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는 기술설계 잘못으로 인한 전형적인 행정력과 예산낭비 사례"라고 주장했다.

주경님 시의원

박춘수 시의원

문상필 시의원

이어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 낭비를 없애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신설 조직, 섣부른 조직개편에 업무 파악 미흡"=박춘수(새정치·남구 3) 의원은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개편을 통해 새롭게 신설된 부서가 세 달이 지나도록 업무 파악 조차 못하고, 추상적인 사업계획만 나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사회통합추진단의 경우 윤장현 시장의 역점 공약사업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건설'에만 너무 몰입하고 있는 것은 옳지 못하며, 광주에 입주한 가전·광산업 등 다른 산업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참여혁신단은 혁신이란 이름에 걸 맞는 구체적 신규사업계획도 없이 타 시도가 이미 진행한 사업을 나열해 혁신에 걸맞지 않는 구태를 반복·답습하고 있다"며 "기획조정실은 시정 컨트롤 타워 기능을 풀가동해 민선6기 첫 항해의 승패를 좌우할 신설 부서의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교육재정, 교육청-지자체 협력해야"=문상필(새정치·북구 3) 의원은 16일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체 예산의 75%나 차지하는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내년도 교부금이 1000억원이나 감소하는데도 인건비 인상 등 세출증가로 1943억의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시교육청의 교육감 공약사업에만 2017년까지 모두 641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주요 사업들은 광주시의 지원이 필요한데도 아무런 논의와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시교육청은 세입과 세출구조의 개선방안과 지방재정 건전화 계획 수립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교육현안에 대해 시민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시민회의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에도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행정협의회 정례화와 실무협의회 활성화를 촉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4시간 활동보조 덕분에 삶이 바뀌었어요"

광주 중증장애인 직접 빚은 컵·접시 윤시장에 전달

광주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직접 빚은 컵과 접시 등을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전달한 사연이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홀로 거동이 불가능한 뇌병변 언어장애를 앓고 있는 임승기(42)씨는 지난 13일 오후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자세유지 기구에 의지한 채 광주시장실을 방문했다. 임씨는 이날 윤 시장에게 최근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 전시한 자신의 작품 중 컵과 접시 등 6점을 선물로 전달했다. 〈사진〉

"예전 같으면 집 밖 외출마저 포기하고 살았다"는 임씨는 "이제는 스스로 나만의 작품을 만들게 됐고, TV에서나 볼 수 있었던 광주시장을 직접 만날 용기까지 내게 됐다. 이번 주부터는 경북자립생활센터에서 강연도 하게 됐다"며 자신의 달라진 삶을 자랑했다.

임씨가 이날 윤 시장을 찾게 된 것은 민선 6기 들어 시장 첫 결재로 '중증장애인 1일 24시간 활동보조 사업'을 시행한 것에 대한 고마움 때문이다.

임씨는 "24시간 활동보조를 해주신 덕분에 삶이 바뀌었다. 남들에겐 평범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컵과 접시 등도 혼신의 힘을 다해 만든 덕분에 타 지역에 강연까지 나가는 영광을 얻게 됐다"면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일 죽음을 고민했던 삶이, 이제는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재미있는 일이 기다릴까'라는 즐거움을 기대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며 활짝 웃었다.

뜻밖의 선물을 받은 윤 시장은 "생애 가장 값진 선물을 받았다. 가보로 대대손손 소중하게 보관하겠다"면서 "다만 감사하다는 말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도시행이) 너무 늦어 죄송하다. 앞으로도 그늘진 곳, 아픈 곳, 힘든 곳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모터스포츠 페스티벌 성료 올해 국내 모터스포츠 대회를 총결산하는 '전남도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이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국내 최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렸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16일 경주장을 찾아 참가 선수들을 격려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전남도 제공〉

"전남개발공사 사업 재검토 부채 상환대책 마련해야"

전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민준 의원(나주 1)은 지난 14일 2014년도 전남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3250억원이 투자된 경도해양관광단지는 부채는커녕 이자 갚기에도 급급한 실정"이라며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042억원이 추가 투자되야 하는데, 4300억원을 골프장 수입으로 벌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그는 또 지난 제290회 임시회에서 지금까지 미분양된 토지 15만6000㎡(약 354억원 상당) 중 올해 61억원(약 2만7000㎡)에 해당되는 토지를 분양하겠다고 밝혔지만 분양 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지역균형발전 실현이 곧 호남정치 복원"

박주선 의원 초청 강연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동구) 의원은 16일 "당내에 친노가 아닌 친문(親文·친문재인) 계파가 없어지지 않는 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는 없다. 그렇다면 새로운 당의 출현도 주저할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민주당 전직 당직자 출신들이 구성한 '국민 희망시대' 광주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호남정치의 복원'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호남 정치복원은 지역주의나 지역 패권주의가 아니다"라면서 "낙후된 호남발전을 이뤄 지역균형발전을 실현시키는 것이야말로 호남정치의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친문'세력은 집권에는 관심없고 당권잡는데만 관심이 있다"면서 "호남인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정당이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데도 (총선과 대권 패배에 대한)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지지 않고, 오직 당권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뿐이다"고 당내 친노 세력을 겨냥했다.

박 의원은 "이들에게 국민들이 더 이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버린 지 오래"라면서 "이제는 민생·민주·인권·평화라는 고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호남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핵심지지 기반인 호남출신 지도자 지도부 입성 ▲공천 등 원칙과 기본이 서는 정당 건설 ▲진보가 아닌 건전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융합하는 중도개혁정당으로 변신 ▲당원 중심의 정당 ▲투쟁하는 정당 이미지 벗고, 대안 제시 및 생산적 역할하는 정당으로 변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

수도권 16개 기업 나주혁신도시 이전 의향

공공기관 이전 효과 가시화

광주시, 기업유치 설명회

수도권 소재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 10여개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 의향을 내비치는 등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가시화하고 있다.

광주시는 16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관련 기업 유치에 나서 수도권 소재 16개 기업이 이전 의향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전 의향을 밝힌 기업은 애니메이션 제작, 영상제작 및 콘텐츠, 모바일게임 제작 분야 등으로 ▲㈜앨리스에프엑스 ▲㈜슈퍼히어로소프트 ▲㈜스토리풀 ▲㈜모바일버스 ▲스튜디오 창 ▲㈜박스피쉬 엔터테인먼트 ▲영화사 루이 ▲㈜미션포유 ▲㈜브이플랩 등 16곳이다.

이들 기업은 최근 광주 모 호텔에서 수도권 기업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빛가람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ICT콘텐츠산업 기업유치설명회'에서 이전 의향서를 작성했다.

이날 기업유치 설명회에서는 빛가람혁신도시와 연계한 광주시의 투자 환경을 홍보하고, 이전 기업의 성공사례 발표, 빛가람혁신도시와 광주CGI센터를 둘러보는 등 광주의 투자 매력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의향서 작성 기업 외에도 상당수 기업의 CEO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참여기업 CEO들은 광주시가 육성하는 문화콘텐츠산업과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에너지, 정보통신, 문화산업 간 융합 등을 비롯한 광주시의 기업 지원 인프라와 다양한 혜택이 매력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박웅열 광주시 건설행정과장은 "이번 기업유치설명회는 수도권 소재 기업에 문화콘텐츠산업을 비롯해 광산업, 자동차, 정보가전, 그린에너지 등 첨단과학산업 도시 광주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전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